마구잡이 조성→분양 출혈 경쟁→'빚폭탄' 째각째각

빚더미로 돌아온 전남도내 산단

수백, 수천억씩 차입 앞다퉈 조성
국가산단 5곳, 일반산단 32곳
분양률 0~10%대 수두룩
계약 업체 부도·협약 연기도 속출
시·군 이자갚기 재정악화 부채질

기업 및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을 내걸고 지자체들이 앞다퉈 산업단지를 조성했으나 결국 빚만 늘어날 위기에 처했다.

애써 만들어놓은 용지는 분양이 안 되고, 금융기관의 막대한 차입금을 갚아야 하는 기일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너도나도 산단 조성…피말리는 경쟁=최근 전남도가 작성한 산업단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조성이 끝났거나 조성중인 산업단지는 모두 37곳에 달한다. 여수산단 등 국가산단이 5곳, 나주문평산단 등 일반산단이 32곳이다.

국가산단을 제외한 일반산단 32곳 전체 평균 분양률은 74%를 보이고 있으나 그 속내를 살펴보면 '허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분양 및 조성이 끝난 산단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7년 사이에 있는 산단 22곳만 분석하면, 아직 분양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 8곳, 분양율 20% 미만이 6곳에 이르고 있다. 사업이 2015년 완료되는 곳만 10곳에 달하는 등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지자체들 간 '분양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전남도와 해당 시·군이 전략적으로 조성한 영광 대마산단, 장흥 바이오식품산단 등 도내 5개 특화산단도 전체 분양면적 394만㎡ 중 136만㎡를 분양해 분양률이 34.7%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09년 녹십자의 독감백신 화순공장 설립을 계기로 조성된 화순 생물의약은 54.4%, 영광 대마도 완공 1년이 다되도록 분양률 58%에 머물러 있다. 올해 말 준공을 앞둔 장흥 바이오식품산단(13.7%)과 동함평(15%), 올해부터 분양에 들어간 강진 환경(11%) 등은 모두 10%대의 저조한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분양 계약업체 부도, 투자협약 연기 등 '암초'도=2000억원의 자금을 차입해 조성한 나주혁신산단의 경우 최근 분양률이 7.3%에서 제로로 떨어졌다. 분양계약을 맺은 업체가 부도 처리되면서 입주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2017년으로 상환기일이 다가오면서 190개 기업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고 있으나 현실을 녹록치 않다.

유사한 여건에 분양가도 낮은 장성 바이오식품, 동함평 등과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빛가람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용지가 인근에서 분양중이며 신도산단, 남평도시개발사업 등에도 투자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

장성 바이오식품산단에 820억원을 투자해 29만5000㎡를 사들이려했던 '콴한국장유테마파크(주)'와 전남도와의 투자협약식은 21일 오후로 예정돼 있었으나 무기한 연기됐다. 전남도는 콴한국장유테마파크(주)에 투자한 싱가포르 콴인베스트먼트와 명성제분(주) 사이의 '사소한 갈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규모 해외투자자의 경우 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투자처를 변경할 수 있어 전남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투자가 성사될 경우 장흥 바이오식품 산단의 분양률은 기존 10%대에서 40%대로 상승할 수 있었다.

◇효과 부풀리기, 대규모 자금 차입 지양해야=이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재정력이 허약한 전남지역 지자체들이 산단 조성사업으로 인해 재정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분양 사태가 계속돼 상환기일을 넘길 경우 지방채를 내 빚을 갚거나 금리를 높여 상환기일을 연장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개발중이거나 미분양 산단 면적이 정부가 내건 가이드라인 기준을 넘어선 만큼 신규 산단 조성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기가 하향세로 접어들고 있어 시·군이 4~5년 정도 미분양 상태를 지속하면서 기업 등의 투자를 기다릴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의 시기를 일치시키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차입금을 들여 산단을 조성할 경우에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전남도내 산단 조성 현황 (2007년~2017년)

시·군	단지명	지정면적(1000㎡)	사업기간	분양률(%)	시·군	단지명	지정면적(1000㎡)	사업기간	분양률(%)
목포	삽진	219	2007~13	100	보성	신소재	1952	2008~17	모집중
	대양	1565	2008~15	-	화순	생물의약	755	2006~11	54.4
	세라믹	116	2009~13	6.2	장흥	바이오식품	2914	2008~15	13.7
여수	묘도	368	2011~16	-	강진	환경	657	2008~15	11.0
나주	혁신	1785	2008~15	0	해남	화원조선	2058	2007~16	100
	신도	297	2009~14	61.4	영암	용당	351	2008~15	100
광양	황금	1116	2010~15	-	함평	동함평	735	2011~15	15.0
	신금	398	2008~12	54.4	영광	전기자동차	1652	2008~13	58.0
	익신	474	2008~15	-	장성	나노	902	2007~15	45.1
	세풍	3000	2010~15	-	진도	군내	685	2007~16	100
담양	담양	581	2012~15	-	신안	조선타운	13355	2007~13	모집중

당정,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폐지 최종 확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난항 예상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당정은 22일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독립기구인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해 국가안전처 산하로 흡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 태스크포스와 안전행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조찬을 겸한 협의회를 열어 안행부가 성안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이처럼 대부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윤영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원안대로 국가안전처 산하 내부 조직인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전환된다. 당정은 다만 원안대로 해경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기면 각종 사건·사고 시 초기 현장 수사와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동 수사권'은 해양안전본부에 남겨놓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은 해경을 해체한다는 것이 해경이 아예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며 "해양안전본부에 구조·구난·경비 기능과 불법조업 단속. 환경오염 방재 등의 기능을 그대로 남겨두고 수사권은 경찰청에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권을 넘기되 초동 대처 부분에서 육상경찰이 도달하기 전까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초동 수사권은 해경에 남겨두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전환 문제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서 제외하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비 지원 예산을 소방청 요구보다 5배 늘려 1000억원을 새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정치연합은 해경과 소방청을 모두 외청으로 존속시키고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도 함께 다루자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협상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23일 정부조직법 태스크포스(TF) 1차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정부조직법 TF에 여당 측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영석 원내대변인, 정용기·이이재 의원이, 새정치연합에서는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와 박남춘·유대운·박민수 의원이 각각 참여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신경과학 뚜렷한 업적…노벨상 받은 세포 스케치

김은영의 '그림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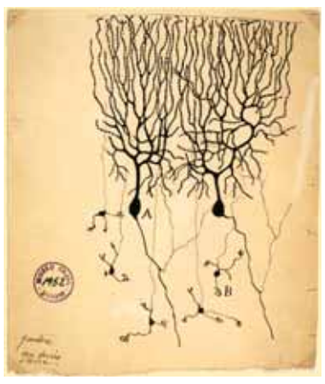
(88) 노벨상

우리 연배의 소녀시절엔 마리 퀴리가 우상이었다. 조국을 위해 가난한 고학시절을 견디며 폴로늄을 발견하고 노벨상을 받은 그녀의 애국심에 가슴 뜨거워지기도 했었다. 선배과학자 피에르 퀴리와 함께 자전거로 나선 낭만적인 신혼여행도 얼마나 멋져 보였던지. '워너 비'였던 마리 퀴리와 별개로 생물과 물상, 화학으로 쪼개진 과학시간은 지루하고 난해하기만 해서 끝내 마음 붙이지 못했지만.

지난주까지 올해의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마무리됐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연구 아이디어와 관찰 대상을 담은 스케치에서 위대한 연구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최근 노벨상 수상자들의 연구 스케치를 모아 전시회도 열리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니 '노벨상을 받은 스케치'로 유명한 산티아고 라몬 이 카할(1852~1934)이 떠오른다.

카할의 골지의 질화는 염색법을 사용한 드로잉인 '소뇌피질의 푸르키네 세포'는 그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그린 것이다. 언뜻 초현실주의 작가의 자동 기술적 소묘로 보이기도 하고, 의식적 억압 없이 그려진 환상적 이미지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카할은 정교하고 아름다운 수백 점의 신경세포 스케치를 남겼는데 그 자체가 신경과학에 남긴 뚜렷한 업적으로 손꼽힐 정도다. 그의 스케치들은 전자현미경이 일반화된 현재에도 여전히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다. 카할은 현대 신경 해부학과 신경 생물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뉴런을 신경계 구조의 기초단위로 확립한 신화적 인물로 190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산티아고 라몬 작 '소노피질의…'

이소영 과학 칼럼리스트는 저서 '실험실의 명화'에서 "신경과학의 초기 개척자들은 예술가이기도 했다"면서 "과학자들은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고 공감을 얻기 위해 결과물을 시각화하는데 공을 들이고, 이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나기도 했다"고 설명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기 위한 과학자들의 지난한 노력 덕분에 오늘날 '무병장수'라는 인류의 원대한 꿈에 가까이 다가가게 된 것 같다. 〈이미지 '실험실의 명화'제공〉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